

십일면관음상

국보

높이 1m의 이 상은 자비의 여신으로 자주 불리는 십일면관음의 상입니다. 관음은 중생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식과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. 머리 위에 배치된 11개의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얼굴은 자비심과 평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11개의 얼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, 10개의 얼굴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열 단계를, 맨 위의 11번째 얼굴은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

전승에 따르면, 관음을 신실히 숭배했던 간다라(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위치했던 고대 왕국)의 왕이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진정한 관음을 찾는다면 일본의 황후에게 배례를 올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는 불상조각가 한 명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. 훗케지 절에 안치된 십일면관음상은 이 조각가가 고묘 황후(701~760년)를 모델로 하여 만든 3구 중 한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.

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초기에 제작된 이 상은 한 그루의 비자나무만으로 조각되었으며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연잎과 꽃봉오리를 번갈아 배열한 광배를 등 뒤에 두고 비스듬한 각도를 취한 오른발의 발끝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. 이 모습은 훗케지 절을 창건한 고묘 황후가 연꽃 연못에서 발을 내딛으려 하는 순간을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. 이러한 표현은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불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. 또한 팔은 길게 묘사하고 생기 넘치는 머리카락은 얇은 동판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. 평소에는 비공개로 본당의 감실 내에 보관되고 있지만, 1년에 3회 일반에 공개됩니다. 이 외의 시기에는 실물 크기의 분신상이 전시됩니다.